

완도수산물수출물류센터, 대만으로 활전복 2톤 첫 수출



준공 이후 첫 수출...코로나19 어려움 속 성과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 전진기지 자리매김 기대”

완도군은 지난해 12월 17일 준공한 완도수산물수출물류센터에서 지난 2일 활전복 2,000kg를 대만으로 보내는 선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은 수산물수출물류센터 준공 이후 첫 수출로 코로나19로 인해

수출 판로 확대 등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이뤄낸 성과이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1.5 단계에 따른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신우철 완도군수와 허궁희 완도군의 회 의장, 박남규 완도수산물수출물류

협동조합 이사장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해 진행됐다.

완도수산물수출물류센터는 완도항 배후 부지에 건립되었으며, 연면적 2,521㎡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시설을 도입하고, 수조동과 냉동·냉장실, 급속동결실 등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수산물 수출 시설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정정 해역

에서 자란 전복 등 완도 수산물이 앞으로 대만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기를 바란다.”면서 “완도수산물수출물류센터가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해 5,447톤(6천 4백만 달러)의 수산물 수출 실적을 거두었다.

완도=이민혁기자

장흥군, 산림소득 보조사업 지원 대상자 확정

교부 신청서 제출 기한 오는 10일까지

장흥군은 지난 2월 25일 목재산업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임업산촌분야 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2021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 10일까지 교부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고 전했다.

금년도 산림소득사업은 자체 사업(순수 군비)과 보조 사업(국도비)을 합쳐 총 244임가에 1,786백만(11사업)이 지원될 예정이다.

금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으로는 표고자목의 경우 당초 3년 1회 군고보조로만 지원되었던 것에서 군비사업을 추가하여 3년 2회로 지원(국

비) 보조(1년) ⇒ 군비 보조(1년) ⇒ 휴년(1년/순년제)으로 지원한다.

표고 재배사는 고온, 과습, 건조 피해 방지를 위해 산림청 표준 모델 상부 환기형인 ‘유휴3형’으로 신축하는 것에 한하여 지원한다. 개보수(리모델링) 사업의 경우에도 자연재해 예방시설(고갈, 2중 차광, 스프링클러, 환기팬 등 온습도 제어 장치)을 갖춘 표고 재배사로 보완하는 것에 한하여 지원된다.

노후된 비닐, 차광망, 개폐기, 파이프 등 단순한 소모품 교체는 지원되지 않는다.

아울러 2천만 원 이상의 물품 및 장비와 사업에 대해 전자입찰(나라장

터) 또는 계약 대행을 통해 구입 또는 시공해야 하며, 2020년 1월부터 보조금 부정 지급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매우 강화되어 형사처벌(징역형과 벌금)과 함께 부정수급 보조금 및 발생이자 환수는 물론이고, 환수 보조금(이자 제외)의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 부과가 적용된다.

또한 장흥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5년간 관허사업 및 행정수혜(각종 인허가, 농민수당, 복지수당 등)를 5년간 지원 받지 못한다.

군 관계자는 “보조 사업자에게는 반드시 달라지는 사항을 숙지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흥=김도영기자

강진군, 간부공무원 대상 맞춤형 청렴 교육 실시

간부공무원 35명 대상 청탁금지법 등 교육



강진군은 지난 2월26일 다산청렴연수원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35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간부공무원이 신규 공무원의 생각과 문화를 이해하는 청렴 공감대를 형성하고 솔선수범하는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 권기현 서기관 강사를 초빙해 ‘청렴을 위해 간부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해 공직자로서 필요한 지식과 청렴의 가치를 전달했다.

이승옥 군수는 “지자체 경쟁력의 원천은 청렴과 투명성, 공정성에 달려 있는 만큼 간부공무원들부터 본보기가 되어 청렴문화 확산에 솔선수범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강진군은 앞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매달 공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렴 시책을 강화하고, 군산하 전 공직자가 청렴에 대한 마음가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강진=김영일기자

“멋진 진도 구경하고 진도 특산품 받아가세요”

진도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진도군 모바일 스탬프 투어’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진도군 거주자를 제외한 전국민이 참여할 수 있으며, 윤림산방, 진도타워 등 진도군 주요 관광지 22개소가 대상이다.

주요 관광지 중 18개 이상 모바일 앱 인증 완료하면 30,000원 상당, 15개 이상 인증 완료시 15,000원 상당, 10개 이상 인증완료시 10,000원 상당의 진도 특산품을 증정한다.

진도군 모바일 스탬프투어는 모



바일 앱을 활용해 운영하고 있으며, 스탬프 투어에 참여하려면 플레이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스탬프투어 앱을 검색해 설치한 뒤 진도군 스탬프투어를 선택하면 된다.

진도군 관광과 관계자는 “코로나로 대부분의 축제나 행사가 취소돼



지역 경제가 침체해 있다”며 “가족·친구·연인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행사로 진도군의 관광 명소를 알리고 지역 농수산물을 판촉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해남군, 청년 모임 활동비 지원 “커뮤니티 활성화”

동아리·프로젝트팀 청년단체, 오는 12일까지 신청

해남군은 청년들의 자율적·창의적 활동을 장려하고 교류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 모임 활동비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으로 구성된 동아리(소모임) 또는 프로젝트 팀이다. 지원규모는 동아리 팀별 100만원 내외, 프로젝트 팀별 500만원 내외의 청년 모임 진행비, 제작비 등 활동

경비 및 프로젝트 사업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활동분야는 동아리는 문화 기획(전시, 공연 등), 지역 공동체 교류 등이며, 프로젝트 팀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적 활동,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등이다. 동아리 20팀 내외, 프로젝트팀 6개팀 내외로 선발할 계획이다. 단순 진목도모, 정치·종교적, 일회성 목적인 동아리 등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2월 22일부터 3월 12일

까지이고, 사업기간은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이다.

참여 희망자는 군 홈페이지에서 서식(사업 신청서, 사업 활동 계획서, 활동비 집행계획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군청 인구정책과로 방문 제출, 우편접수(등기) 또는 담당자 이메일(wis05@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61-530-5729)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기동취재본부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